학교급식 투명성 높이고 영세업체 부담 낮춘다

aT, 불공정 위험 130여개 업체 전수조사

소규모학교 공급업체 이용수수료 면제 확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여인홍·aT)는 12일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이하 eaT시스템)의 불공정 위험업체 전수조사를 통해 급식비리 차단효과는 높이고 소규모 학교에 공급하는 영세업체의 수수료 부담은 낮출 계획이다"다고 밝혔다.

학교급식관련 비리는 학교·업체 간 유착, 입찰담합, 품질·등급 속이기, 편법적인 수의계약, 부당한 지명경쟁계약 등 그 유형이 다양하며, 비리수법은 점점 지능적이고 다양해지고 있지만, 기존 계약 방식으로는 급식 정보 수집과 이력관리가 어려워 위반업체 적발 자체가 쉽지 않았다.

이에 비해 eaT 시스템은 비대면 입찰·계약 시스템으로서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적정 자격을 보유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주문 시 식재료 정보가 데이터화되어 이력추적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납품업체·학교 정보, 식재료 단가, 계약 방법 등의 정보를 활용하여 위장업체를 점검하는 등 공정거래 여부를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다.

또한 eaT시스템의 '지능형 입찰비리 관제시스템'은 입찰담합 등 비리가 의심되는 정보를 모니터링 해 불공정지수를 4단계로 자동 산정하며, aT는 불공정지수 위험 단계에 이른 130여개 업체 정보를 교육부·식약처·경찰청 등과 공유해 순차적으로 업체 전수조사를 할 예정이다.

학교 측의 식재료 품질관리도 한결 수월하다. 식품 안전관리 유관기관과 시스템이 연계돼 있어 친환경 인증정보, 축산물 HACCP 지정 정보 데이터가 공유될 뿐 아니라 원산지 단속 행정처분 정보, 식중독조기경보 정보 등을 기초로 부적격업체를 사전 배제해 입찰 참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사전 품질기준 제시와 사후평가시스템을 통해 전자조달을 통한 품질관리를 지원하기 때문이다.

aT 관계자는 "전자조달을 하면 최저가 입찰로 인해 가격경쟁을 벌여 품질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실제로는 급식 비리로 인한 품질 저하 문제가 더 크며, eaT시스템 계약의 90% 이상이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 방식으로 적정 가격을 보장하고 있어 품질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향후 aT는 학교급식 영세업체들의 이용수수료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현행 감면범위를 조정할 예정이다. 낙찰금액 50만 원 미만에 적용하는 이용수수료 면제 규정을 100만 원 미만까지 확대한다.

한편 현재 급식업체 이용수수료는 최저 0원(낙찰금액 50만원 미만)부터 최대 3만원(5000만원 이상) 사이이며, 이중 연간 계약금액 5억 원 미만의 소규모 업체는 3400여 업체로 전체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한국농어촌공사 전남본부 수자원관리평가 우수

최근 영암에서 열린 세계 물의 날 기념식에서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관계자들이 '2016년 수자원관리종합평가 우수부서와 하백상 최우수상'을 수상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제공〉

조현진 진도지사과장 하백상 최우수상 수상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윤석군)는 최근 영암에서 열린 세계물의 날 기념식에서 '2016년 수자원관리종합평가 우수부서와 하백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공사는 해마다 전국 8개 도본부를 대상으로 수자원관리, 수질관리, 시설물관리에 대한 수자원관리종합평가를 실시하는데 전남본부는 농업인 서비스 개선, 경영여건 개선 노력을 인정받았다.

또 농업용수와 시설관리 업무수행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 업무발전을 이룬 직원에게 주는 하백상 최우수상을 진도지사 조현진 과장이, 우수상에 영암지사 이병기 차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윤석군 본부장은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관리방법의 과학화와 재해예방에 대한 노력과 역량을 인정받아 기쁘다"며 "올해는 보다 더 혁신적이고 과학적인 용수관리로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안전영농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농협광주본부-완도군, 해조류박람회 성공 개최 협약

입장권 5000매 구입 약정

농협광주본부는 최근 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완도군과 '2017완도 국제해조류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했다.

이날 행사에는 신우철 완도군수, 박태선 농협광주지역본부장, 김귀남 농협은행 영업본부장, 김남승 완도군지부장, 광주조합운영협의회 전봉식 의장 및 지역농협 조합장 등 2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협약식에서 농협광주본부는 박람회 입장권 5000매를 우선 구입하기로 약정했다.

박태선 본부장은 "2017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가 성황리 치러질 수 있도록 광주 관내 농협도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신우철 군수는 "오는 4월 14일부터 24일간 개최되는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가 풍성한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를 고루 갖추어 성공적인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여 해조류산업의 선점 및 국가적 위상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농협전남본부-대보건설, 전남쌀 소비확대 MOU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이흥묵)와 NH농협은행 서울지역본부(본부장 권석환)는 최근 전남본부 8층 회의실에서 서울 강남의 대보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 정광식)와 전남 쌀 판매 확대 및 소비촉진을 위한 협력과 양질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는 '농촌사랑, 상생협력MOU'를 체결 했다.

이번 MOU 체결 업체인 대보건설(주)은 NH농협은행 서울지역본부와 개래하고 있는 우량 거래업체로 NH농협은행 주선으로 이루어졌으며 향후 전남 쌀 판매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NH농협은행은 대보건설(주)에 복잡해진 금융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양질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NH농협은행 서울지역본부은 전남 쌀 판매 확대를 위해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거래하는 기업체와 쌀 판매를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들어 1000포대(20kg)를 판매하는 등 전남 쌀 판매에 앞장서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주간 증시 포커스

탄핵 불확실성 해소 심리적 안정

美 금리인상 현실화·FOMC 주목

코스피 관망세 속 2100선 탈환 시도

헌법재판소가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로 박근혜대통령 탄핵인용 결정을 내렸지만 증시를 비롯한 금융시장은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이 판결문을 낭독하며 사실관계를 설명한 뒤 "그러나" 를 언급할 때마다 지수가 순간적으로 하락하며 탄핵기각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지만 파면선고가 내려지자 지수가 반등하고 안정을 찾으며 마감했다. 대다수의 국민의 예측대로 금융시장도 탄핵인용 가능성을 선반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주 필자가 언급하였듯이 예정된 재료의 시장영향은 제한적이며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불확실성이다.

헌재의 탄핵인용으로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되며 주식시장은 심리적인 안정을 찾겠지만 시장의 관심은 이번 주 한국시각 16일로 예정되어 있는 미국 FOMC(미국연방공개시장위원회)로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3월이전에만해도 미국금리인상확률은 30% 미만이었지만 최근 90% 수준을 넘어서며 시장에서는 사실상 16일 금리인상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금융시장에서는 현재 세 차례 금리인상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번 FOMC에서 금리인상 횟수가 상향 되거나 속도가 빨라지는 등의 변화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점도표 상향이 없이 인상만 단행된다면 미국증시 안도랠리는 이어지고 유가하락으로 최근 조정을 받고 있는 이머징증시도 안정세를 보일 것이다.

지난주 필자가 시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사드와 코스닥시장 기관수급을 언급하였다. 지난주 초반까지 반한시위가 과격화되고 화장품 통관지연, 중국관광객 방한취소급증, 중국 내 롯데마트의 절반이 넘는 55곳 영업정지 처분 등 중국제재는 강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롯데그룹과 화장품, 음식료, 관광, 미디어 등으로 제한되는 모습이다.

틸러슨미국 국무장관의 한국을 시작으로 일본과 중국방문이 이번주 17일부터 예정되어 있다. 4월 미중정상회담 조율을 위한 중국방문으로 사드배치의 직접적인 이해당사국중에 하나인 미국의 중국에 대한 설득여부가 향후 사드문제해결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대통령 탄핵결정으로 친중국 성향이 우세한 야권 신정권 출범에 대한 기대감으로 향후 한국과의 외교관계를 고려하여 수위조절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예상할 수 있다.

기관수급은 코스닥시장과 중소형주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하지만 기관은 코스닥시장에서 2014년 2042억과 2015년 2377억을 순매도 했지만 2016년 한해동안 4조4700억을 순매도 했고 2017년도 들어서도 1조1500억을 순매도하며 매도규모가 더욱 커지고 있다.

한편으론 기관의 코스닥시장 순매수는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라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2015년 1월부터 코스닥지수 고점을 기록한 2015년 7월 24일까지 기관은 1조1800억을 순매수하며 상승(537P에서 788P까지 상승(+46%))을 견인하였다. 2015년 7월 코스닥지수가 고점을 기록한 이후 기관은 코스닥시장에서 7조원 이상 순매도를 기록하였다. 기관의 이런 지속적인 코스닥 매도기조 속에서 필자가 기관수급변화에 관심을 이야기하는 것은 2017년도 역시 IT와 금융을 중심으로 대형주 중심장세에는 변화가 없겠지만 박스권 하단에 위치한 코스닥시장의 가격메리트와 함께 기관의 코스닥 매도가능물량에도 한계가 있는데 올해 들어 처음으로 기관이 코스닥시장에서 주간기준 549억 순매수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이번주는 코스피 2100선 안착테스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난주 탄핵인용결정으로 문재인 예비후보를 중심으로 유력대선후보의 정책공약주에 대한 관심이 강화되고 중국사드관련 낙폭과대주의 반등시도가 기대되며 보수적인 투자자는 코스닥ETF의 저점분할 매수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정 계 두
〈유진투자증권 광주북지점장〉

2층 상가매매
(CGV 광주용봉점)

카페(인테리어완료), 병원, 미용실, 학원
당구장, 탁구장, 체육관 등

● 전용 289㎡ (약87평) 분양면적 약150평
● 현재 카페 인테리어(160㎡) 및 공실(129㎡)
● 매매 7억원(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원

락 볼링장 매매
(CGV 광주용봉점)

최신인테리어 락 볼링장, 현성업중
직영하실 분 유망사업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원

문의 010-3647-4747
상기물건은 전속중개 물건으로서 **급매가** 입니다

www.솔향기맑은터.com
솔향기맑은터
NAVER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참숯구이 돼지갈비 전문점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빼는날 화, 목, 토, 일
▶ 불빼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0인승, 20인승 무료이용
▶ 멸균작용으로 AI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염가공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 참숯가마 고객님이 식당 이용시 10% 할인

참숯구이 돼지갈비 13,000원
(눈,비오는날 9,900원)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돼지갈비 전문점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20%할인
▶ 주말 및 단체모임은 사전예약을 해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각종모임(상견례, 가족모임, 기업체모임)/컨퍼런스룸/참숯가마 찜질방/노래방 & 동전노래방